

“마음이 또 겹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13-17, 25-35)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흘 후 삼일절 전날 그리고 술에 빠져 자살한 시골 청년 엠마오 향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이 두 제자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18절에는 이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글로바리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바리는 주님의 12제자 중 한 자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았던 제자 글로바리의 아내 마리아로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장으로 글로바리와 그의 아내 마리아(또는 딸)이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게 되었고 그들이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리아 함께 지내던 여인들 3원 후 새벽에 주님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돌이 옮겨져 있었고 주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로 그때에 친사를 보았는데, 친사가 이르기를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더 소명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7절에 들은 빛을 띠고 있었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버림받았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불멸의 생명을 위하여 버림받았지만, 불멸의 생명이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만입니다.

‘영광케 받으려는 이 행하여 타자는 기쁜 소식(Good News)’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단어는 복삭어는 틀이 아닌 강한 선포적 소외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엄청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길가변을 뛰어다니고 소식을 부딪쳐서 이르는 호외인 호외와 같은 그림의 모습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서도 ‘영광케 받으려는 이’ 단어는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때 기쁜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마치 포랑 스나니올레와 안드레 엘렌타리의 위대한 전쟁을 기념해 승을 목마 전쟁의 권리를 가리킨 단어로 사용됩니다. 모스크가 거리에 뛰쳐나와 승리를 선포한 승리의 기쁨의 소리가 되었던 이 시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 그가 살아남은 우리 또한 살아나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음으로 우리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의 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참 소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완전한 복음, ‘영광케 받으려는 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를 저들이 만났으며 글로바리의 가문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의 또 거룩해진 것입니다. 복음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절망의 발걸음이 이제는 ‘영광케 받으려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복음 속해 행하는 소망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저 금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11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난 모든 자들은 변화하게 됩니다. 부활입니다. 어떻게라도 성 아가서스로 변합니다. 노예들을 팔아 엄청난 생명을 즐기던 추 누런도 이 영광케 받으려는 이 소망이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것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 미약한 칭송을 본들로 저들을 전도하는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했고 십자가에 도망쳤던 데몬들도 나중에야 십자가에 가까이 매달려 손과 발을 뻗었다. 의의 삶인 모든 11 제자들 도 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가 승리와 자애에서 생명을 전하러 다녔다. 마리아도, 그리고 복음의 생명을 우리 모두가 승리를 전하게 된다. 부활케 받은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퉁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풀이 주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 앞에 기쁨이 형성되게 하시어 부활의 신앙으로 돌이키시는 유망의 고도성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함께 일어서는 능력의 공동체”

2025년 포어

“내 개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나훔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3:35)

사랑의 5대 강령: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다음세대 사랑, 서로 사랑, 영혼 사랑

일반전회	교회학교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시	오전 예배부	주일 오전 10시
드림 워십	주일 오전 8시	영아부	주일 오후 12시
글로리 워십	주일 오전 10시	유아부	주일 오후 12시
블레싱 워십	주일 오후 12시	유치부	주일 오후 12시
청년예배	주일 오후 12시	초등부	주일 오후 12시
영아예배	주일 오전 10시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리빙미션부	주일 오후 12시
수요요방기도회	수요일 저녁 8시	세비나 한국교회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유아부	최수진 지도사 (917)526-1344	1, 2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유치부		청2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초등부	최주안 지도사 (646)662-0691	3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고등부	손주영 지도사 (917)797-4237	4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리빙미션	박영애 지도사 (718)737-1643	5, 6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청년부	김성준 목사 (617)949-1118	히스패닉	이효성 목사 (646)549-6043
영아회중	김 목사 (201)679-2924	네 팔	다넬 바넷 목사 (201)927-0220
행	최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몽	골 디시 투블들 목사 (646)467-2675
양	육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다민족지역	양영란 지도사 (917)533-9511
새가족부	최순성 목사(재) 박수진 전도사(재)	시니어지역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신명부	박수진 전도사 (646)642-9331		

단체 기독교TV(타임워너 케이블 채널487)/매주 금요일 저녁 9시(만양송)
 토요일 오전 11시(재방송)

2025년 4월 27일	
1부 예배 8:00am	2부 예배 10:00am
드림 워십	글로리 워십
인도: 김학진 목사	인도: 김학진 목사
	3부 예배 12:00pm
	블레싱 워십
	인도: 강영준 목사

*경배와 찬양 Worship Song	두나미스 찬양팀	신앙교백	사도신경
*기원 Invocation	인도자	경배와 찬양	블레싱 찬양팀
*심시교독 Responsive Reading	제57편 ‘시편(Psalms) 27편’	기도	이종욱 집사
*신앙교백 Creed/Apostles Creed	사도신경	공동체 속삭	영성
찬송 Hymn	새88장(통3) ‘우리는 남무렵 창조사니’ We Praise Thee, O God, our Redeemer, Creator	성경본독	창세기 11
기도	박승우 장로 (Elder) Sing Woo Park	*봉헌	“나 무엇과도 주님들” 김영민 교수
성경본독 Scripture	히브리서(Hebrews) 3:4	성고	“성경과 과학” 김학진 목사
*봉헌 Offering	새73장(통3) ‘의생명의 뿌리’ (4장) “Take My Life and Let It Be”	찬양	“주 하나님은 모든 세계 위대한 주”
찬양 Anthem	글로리아 찬양대 “시편 27편”	축도	김학진 목사
성고 Praising	“영조의 과학적 증거” 김영민 교수		
*찬송 Hymn	새79장(통4) ‘주 하나님은 위대한 세계’ “O Lord My God When I Awesome Wonder”		
축도 Benediction	김학진 목사		
공동체 속삭 Awakenments			

(*표는 가능하면 읽어남 / Stand if able)